

# 복합동사의 서술성과 귀결성에 관한 연구 \*

이 영 현  
(조선대학교)

Young-hern Lee, 1999, *Depictives and Resultatives of complex verbs in Korean. Linguistics*, 7-1, 379-40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emantic aspects of complex verbs based on their argument structures. Syntactically two subcategories of complex verbs are [V + V] and [V + secondary predicates] structures, former is called the serial verb and later complex secondary predicate. Semantically the complex secondary predicate has a depictive or resultative meaning which depends on the main verbs in English. However, the complex predicates in Korean have a various meaning such as objectives, emphasis, and causes, and the difference of meaning depends on the secondary predicate itself in Korean. Particularly the order of performance in complex secondary predicates comes the secondary predicate and main verb in depictives and the opposit order in resultatives in Korean. (Chosun University)

## 1. 서론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의 복합동사(complex verb) 가운데는 두 개 이상의 동사가 결합된 경우와 동사와 제 2서술구(secondary predicate)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V + V]구조를 갖는 이른바 사슬동사(serial verb)<sup>1)</sup>이고 후자의 경우는 [V + 제 2 서술어]구조를 갖는 복합서술어(complex secondary predicate)<sup>2)</sup>라 할 수 있다. 특히 제 2 서술어는 언어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갖는다. 영어에서는 [V + NP + AD]]의 구조

---

\* 이 논문은 1997년도 조선대학교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이영현 (1996) 참조

2) 복합동사 가운데 제 2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구를 복합 서술어(complex secondary predicate)라고 칭하고자 한다.

를 갖는 반해서 국어에서는 [V + V]나 [Adj + V]의 구조를 갖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앞으로는 국어라 칭함)의 복합동사는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 즉 사슬동사는 [V-어 + V]구조를 갖는 /-어/구조와 [V-고 + V]구조를 갖는 /-고/구조로 세분된다. 그리고 제 2 서술어구는 [(A,V)-게 + V] 구조나 [A-(이,히,리) + V]구조를 갖는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 (1) a. go get the paper.  
 b. 호랑이가 아이를 업어 갔다.  
 c. 철수가 놀고 먹는다.  
 (2) a. John hammered the can flat.  
 b. 꽃이 곱게 피었다.  
 c. 철수가 죽게 아팠다.  
 d. 달이 높이 떴다.  
 e. 철수는 성실히 일했다.  
 e. 철수가 빨리 뛰었다.

(1)은 사슬동사의 예로써 영어에서는 두 동사의 원형이 결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어에서는 (1b)와 같이 /-어/구조를 갖는 경우와 (1c)처럼 /-고/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2)는 복합서술어의 예로써 (2a)는 [V + NP + A]의 구조를 갖는 경우이며, 영어에서는 (2a)와 같은 구조만을 갖는다. 특히 국어에서는 (2b)에서처럼 [A-게 + V]구조를 갖는 경우 외에도 (2c)의 [V-게 + V] 구조, (2d)의 [A-이 + V] 구조, (2e)의 [A-히 + V] 구조, 그리고 [A-리 + V]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다<sup>3)</sup>. 이렇듯 복합동사 가운데는 언어에 따라 대단히 다양한 형태적 특성을 갖는다.

복합동사의 통사·형태적 상이는 의미적으로도 대단히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a)에서 보는 것처럼 제 2 서술어<sup>4)</sup>는 선행하는 명사와 더불어 주어-술어 관계가 성립한다. 즉 (2a)의 the can flat는 hammered와 더불어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하면서도 the can과 flat 사이에

3) 본고에서는 [(A, V)-게 + V]구조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2a)의 flat 역시 동사구(hammered the can flat)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the can flat 역시 동사구의 일부이다.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flat 제 2서술어 그리고 the can flat 제 2 서술구라고 칭한다.

는 주어-동사의 관계, 즉 [the can is flat]가 성립한다. 또한 (2a)의 국어에서도 꽃이 곱게는 동사 피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하면서도 꽃과 곱게 사이에는 주어-술어 관계 즉 [꽃이 곱다]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the can flat나 꽃이 곱게를 제 2 서술구<sup>5)</sup>라고 칭한다.

뿐만 아니라 제 2 서술구가 주어-동사 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어-동사 관계는 주동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의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 (3) a. Noa ate meat raw. - 서술성
- b. Tanar hammered the metal flat. - 귀결성

영어에 있어서 제 2 서술구는 (3)에서 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모두 동일한 구조 즉 [V+ NP + AD]]를 가지고 있지만 [NP + AD]] 사이의 의미관계는 서로 상이하다. 즉 제 2 서술구의 특성은 서술성, 귀결성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 2 서술구는 국어에 있어서도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 (4) a. 꽃이 곱게 피었다. - 서술성
- b. 철수가 꿈을 멎들게 찾다. - 귀결성
- c. 남편이 입게 아내가 털 스웨타를 땀다. - 목적성
- d. 철수가 죽게 아팠다. - 강조

국어의 제 2 서술구는 통사적으로는 영어와는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 5) 제 2 서술구조 즉 NP + ADJ는 동사와 밀접한 의미역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Dowty(1979), Simpson(1983) 등에서는 영어의 V와 NP + ADJ의 결합구조를 복합동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Bolinger(1971)에서는 이들 구조를 불연속 어휘 항목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Dowty, Simpson의 용어를 도입하여 이를 복합동사라 칭한다.
- 6) 서술성이나 귀결성 외에도 사역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i)에서처럼 사역동사가 쓰이는 경우나 (ii)에서처럼 [-게 하다]의 구조를 갖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i) John made the tiger furious.
  - (ii) 철수가 호랑이를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4)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서술성, 귀결성, 목적성, 그리고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윤평현(1988), 김승신(1987)에 의하면 (4b)의 경우 꽃이 곱게는 주동사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다. 즉 곱게 피다에서는 곱다의 주어는 꽃이고, 피다의 주어 역시 꽃이라는 점에서는 각각 독립된 문장으로 간주되지만, 곱게는 피다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곱게는 주동사의 상태를 서술함으로 서술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제 2 서술구는 동사구 가운데 일부가 주어-술어 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들 제 2 서술구<sup>7)</sup>는 동사구의 일부라는 점에서 복합 동사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 동사구의 논의에 있어서는 이들 제 2 서술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제 2 서술구 가운데 [NP + {A, V} + [-계]] 구조에 대한 종래의 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구조가 갖는 의미적 특성을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제 2 서술구

국어에 있어서 제 2 서술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NP + {V, A}-계]이지만 [NP + {V, A}-계]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2 서술구의 통사적 특성을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sup>8)</sup>.

- |                              |           |
|------------------------------|-----------|
| (5) a. <u>개나리가 곱게</u> 피었다.   | -부사형성 접사  |
| b. <u>철수는 살게</u> 되었다.        | -보조적 연결어미 |
| c. <u>물이 잘 빠지게</u> 하수구를 고쳤다. | -종속적 연결어미 |

7) 제 2 서술어가 주어-술어 관계를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위문의 주어물 제 2 서술어의 주어로 취하는 경우와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i) 꽃이 곱게 피었다.

(ii) 철수가 곰을 멍들게 찼다.

(i)에서는 곱다의 주어 상위문의 주어 꽃을 주어로 취한다는 점에서 향주어 서술어(subject-oriented predicate)라고 할 수 있고 (ii)에서 제 2 서술어 멍들다는 상위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취한다는 점에서 향목적어 서술어(object-oriented predicate)라고 할 수 있다.

8) 윤평현(1988)에서는 [계]구조를 (5)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5a)의 **끓게**는 부사형성 접사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서 (5b)의 **살게**는 보조적 연결어미 (5c)의 **까지게**는 종속절 연결어미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서정수(1996)에서는 (5a)와 (5b)를 각각 수식관계 접속문으로 간주 한데 반해서 (5c)를 도달관계 접속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5a)와 (5b)의 경우에 있어서는 ‘게’를 포함하고 있는 선행절이 후행절 **피다**, **되다**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5c)의 경우에 있어서는 ‘게’의 선행절의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후행절의 사건이 영향을 주는 관계로 간주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바로 (5a)의 **끓게**나 (5b)의 **살게**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관계로 간주한 것이고, (5c)의 **까지게**는 ‘게’를 포함하고 있는 명제와 후행절 명제 사이의 관계로 간주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NP + {V, A}-게]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와 제 2 서술구로 쓰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동일한 [게]라 할지라도 그 기능은 서로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이 갖는 의미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제 2 서술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서술성

서술성(depictive)이란 [NP + {V, A} + -게]의 구조를 갖는 제 2 서술구가 본동사의 행위나 상태를 서술하는 경우이다. Rapoport(1993)에 의하면 서술성 가운데는 **행정(stage)서술**과 **상태(stative)서술**로 구분하고 있다. 상태서술은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제 2 서술구가 주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 (6) a. I like my furniture **heavy**.  
 b. I hate my beer **bitter**.  
 c. I prefer my glasses **dark**.

(6)의 제 2 서술구가 갖는 성질을 **상태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6a)는 ‘I like my furniture to be heavy’ 또는 조건적 해석 즉 ‘I like my furniture only if it is heavy’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로써 my furniture라는 지시물에 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 2 서술어 heavy가 지시하는 대상인 가구가 가벼운 상태에서 무거운 상태로, 또는 무거운 상태에서 가벼운 상태로 전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다. 즉

화자가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무거운 가구이며, 이 경우 제 2 서술어 heavy는 주동사 like를 서술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반해서 행정서술의 경우는 목적어 NP가 나타내는 실제물이 제 2 서술어(여기에서 말하는 제 2 서술어는 영어에서는 목적어 다음의 ADJ에 해당한다) 의하여 전이적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 (7) a. I sold [the book]<sub>i</sub> used.  
 b. John broke [the glasses]<sub>i</sub> new.  
 (8) a. \* I sold [my furniture]<sub>i</sub> heavy.  
 b. \* I broke [my glasses]<sub>i</sub> dark.

(7)의 문장들은 자연스런 표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문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7a)에서 [the book]와 used 사이에는 주어-술어 관계가 성립하며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꾸어 말하면 헌책이란 새책으로부터 전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책과 중고 상태 사이에는 서술적 관계이지만 이들 사이에 전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7b)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7b) 역시 행정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이 비문법적인 것은 제 2 서술어의 주어가 되는 요소(여기서는 동사의 목적어인 my furniture)가 전이적 상태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구는 어느 행정에서는 무겁고 또 다른 행정에서는 가벼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행위가 가구의 무게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8a)는 비문법적이다. (8b)의 안경 역시 색깔이 변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안경의 색깔은 원래대로 유지될 뿐이다. 물론 주동사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라 할지라도 안경이 검게되는 경우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8)의 heavy나 dark와 같은 제 2 서술어는 행정서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서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8)이 비문법적인 것은 주동사는 목적어의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제 2 서술어는 변이를 야기하지 않는 서술어와 공기하기 때문이다.

국어에 있어서 서술성의 경우도 상태서술과 행정서술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통사적으로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 2 서술어와 주동사가 동일한 경우이다.

- (9) a. 꽃이 곱게 피었다.  
 b. [s 꽃이 [s<sub>1</sub>꽃이 곱게] 피었다]]

예컨대 (9b)의 꽃이 곱게를 제 2 서술구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게] 구조를 (9b)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김승곤(1986)에서는 (9a)를 (9b)와 같이 분석한 것은 꽃이 곱게와 같은 구조를 문장구조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사적으로는 상위절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요소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국어에 있어서 상태서술은 특정동사나 제 2 서술구 가운데 NP를 결합한 구조에서 볼 수 있다.

- (10) a. 철수가 얼굴이 곱게 생겼다.  
 b. 철수가 죽게 되었다.  
 c. 철수는 순희에게 못살게 굴었다.

(10)의 곱게 생기다, 죽게 되다, 그리고 못살게 굴다 등의 주동사 생기다, 되다, 그리고 굴다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 (11) a. \*철수가 얼굴이 생겼다.  
 b. \*철수가 되었다.  
 c. \*철수는 순희에게 굴었다.

(11)이 비문법적인 것은 바로 이들 동사는 반드시 제 2 서술어를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9)에서와 같이 제 2 서술어와 주동사의 논항이 동일하거나 (10)에서와 같이 동사에 따라 반드시 제 2 서술어를 수반해야 하는 경우 이들은 의미상으로 서술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12) a. 꽃이 곱게 피었다.  
 b. 아이가 예쁘게 웃는다.  
 c. 철수가 신나게 달린다.

앞에서 보아온 것처럼 얼굴이 곱게나 꽃이 곱게를 제 2 서술구로 간주한다면 이 경우 얼굴이 곱게, 꽃이 곱게는 서술적 관계 가운데 상태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0a)는 얼굴이 고운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 변화가 수반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12b)에서도 아이가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아이가 웃었기 때문에 미운 아이가 예뻐졌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상태에서 웃는 상태로의 전이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행정서술은 앞에서 보았던 상태서술과는 다르다.

- (13) a. 철수가 책을 비싸게 팔았다.  
b. 철수는 잠을 편안하게 잤다.

(13a)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가 책을 판 것도 사실이고, 철수가 판 책이 비싸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책을 비싸게 판 경우는 우선 일차적으로 그 책의 값을 알고 있으면서 팔기 이전에 책값을 올린 경우이다. 따라서 비싸다는 값의 변화를 유발한 경우임으로 행정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3b)에서는 철수는 잠을 잤고, 그 잠자는 상태는 편안하였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철수는 잠들기 이전까지는 편안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잠을 자는 단계에서는 편안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의 전이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에 철수가 항상 편안한 상태였다면 잠을 편안하게 잤다는 표현은 무의미할 것이다.

이렇듯 NP와 [(V, A)+[-계] 사이에 서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계]가 주동사가 나타내는 과정이나 행위와 관련된 NP의 상황이나 행위를 서술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얼굴이 곱게 생기다에서 제 2 서술어 곱게는 주어 얼굴에 대한 서술적 기능을 하는데 반해서 철수가 책을 비싸게 팔다나 철수가 잠을 편안하게 잤다에서는 제 2 서술어 비싸게, 편안하게는 각각 목적어 가구, 잠에 대한 서술적 기능을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상태 서술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행정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성이 갖는 특성은 제 2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와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즉 서술성이 갖는 특성은 제 2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 다음에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점은 다음에 논의할 귀결성과는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2.2 귀결성

귀결성(resultative)은 의미적으로 선행하는 NP와 제 2 서술어 사이에 주어-술어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서술성을 나타내는 구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의 주어-술어 관계는 본동사에 의하여 결과적 행위나 상태를 나타낸다.

(14) 철수는 꿈을 명들게 찾다.

(14)의 의미는 철수는 꿈을 찾으며, 철수가 꿈을 찬 결과 꿈이 명들었다는 의미이다. 즉 철수가 꿈을 찬 것과 꿈이 명든 것 사이에는 전자의 행위에 의한 후자의 행위가 비롯된 경우이다. 이렇듯 제 2 서술어가 귀결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주동사의 행위가 참이 때 제 2 서술어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 역시 반드시 참인 경우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철수가 꿈을 찾는데 꿈이 명들지 않았다면 (15)는 거짓인 명제이다. 따라서 꿈을 명들게 찾다와 같은 복합동사구에서 꿈을 명들게와 같은 제 2 서술구는 귀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 2 서술어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는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 다음에 나타난다.

(15) a. 영희는 발이 붓게 걸었다.

b. 영희는 눈이 시리게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귀결성은 주동사의 행위로부터 제 2 서술구의 행위가 유발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15a)의 경우 주동사의 행위 즉 걷는 행위로부터 발이 붓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이다. 또한 (15a)에서도 영희가 바다를 바라본 행위로부터 영희의 눈이 시리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귀결성은 두 행위 사이에 다음과 같은 행위의 순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6) 서술성: 제 2 서술어 > 주동사

귀결성: 주동사 > 제 2 서술어

(16)에서 보는 것처럼 서술성은 제 2 서술어의 행위 다음에 주동사의 행위

를 수반하는 경우이고, 귀결성에서는 주동사의 행위 다음에 제 2 서술어의 행위가 유발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주동사의 통사범주에 관계없이 제 2 서술구가 서술성과 귀결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주동사에 의하여 그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2 서술어에 의하여 그 특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2.3 중의성

국어의 제 2 서술구 가운데는 서술성과 귀결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17) a. 영화는 머리를 곱게 빗었다.  
b. 철수는 노래를 신나게 불렀다.

(17a)에서 머리를 빗은 결과로써 머리가 곱게 보이는 경우라면 제 2 서술구 머리를 곱게는 귀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머리에 빗질을 한 결과 머리가 곱게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영화가 머리를 빗는 행위에 초점이 있다면 서술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머리를 대충대충 빗거나 아니면 거친 행동으로 머리를 빗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양전한 손놀림으로 빗질을 한다면 곱게는 빗질하는 행위를 수식한다. 따라서 제 2 서술어 곱게는 빗질하는 행위에 대한 서술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7b)의 경우에 있어서도 목적어 NP와 [(V, A)-게] 부사형 사이의 의미역 관계에서 본다면 신나게는 목적어 NP에 대한 서술적 관계로 간주할 수 있다. (17b)의 의미는 ‘철수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은 그 노래가 신나는 노래였고, 또한 철수 역시 신났다’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제 2 서술어 신나게의 주어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신나는 대상이 철수인지 아니면 노래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선 신나는 대상을 살펴보자.

- (18) a. 철수가 신(명)났다.  
b. 그 노래가 신(명)났다.

(18)의 문법성으로 보아 **신나다**의 주어는 **철수**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다. 즉 (17b)의 **신나게 부르다**에 있어서는 **철수**가 **신명날** 수도 있고, 그 노래가 **신명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신나게**와 같은 제 2 서술어는 두 개의 NP 즉 **철수**와 **노래**를 주어로 가질 수 있다. 우선 **신나는** 대상이 **철수**일 경우 **철수**는 **신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나는** 상태로 전이가 이루어졌고, 그 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제 2 서술어 **신나게**는 주동사 **부르다**에 대한 상황을 서술하는 경우임으로 서술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수**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신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나는** 상태로 기분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신나게**는 귀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나는** 대상이 **노래**라 할지라도 **노래**의 분위기를 전환하여 **노래**를 **불렀다면** **신나게**는 서술성을 나타내지만, **노래**를 부른 결과로부터 **노래**가 **신명나게** 되었다면 **신나게**는 귀결성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제 2 서술구 가운데는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귀결성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서술성과 귀결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중의적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술성 가운데에는 상태서술과 행정서술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서술성에 있어서는 제 2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와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사이에는 전자의 행위 다음에 후자의 행위가 수반하며, 귀결성에서는 주동사의 행위 다음에 제 2 서술어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서술성이나 귀결성이 모두 주동사의 통사범주와는 무관함도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서술성과 귀결성은 주동사와 제 2 서술어의 논항구조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논항구조

제 2 서술구는 동일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주동사의 논항구조나 제 2 서술어의 논항구조의 상이에 좌우될 수도 있고, 이들 어휘의 개념구조에 기인할 수도 있다 (Rapoport, 1992). 본 장에서는 주동사와 제 2 서술어의 논항구조를 살펴보고 이들 논항구조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과 논항구조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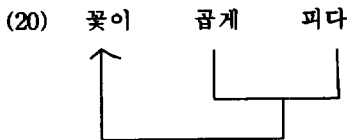
논항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는 의미역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의미역을 부여받는다든 주장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의미역을

부여하는 요소는 동사구에 내적으로 의미역이 표시되며, 의미역 표시는 모든 구의 의미 관계에 관여한다. 따라서 주동사이든 제 2 서술어이든 이들 요소는 서술어으로써 의미역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복합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에는 두 개의 서술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서술어는 각각의 의미역을 할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서술성 가운데 상태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의 의미역 할당관계를 살펴보자.

- (19) a. 꽃이 곱게 피었다.
- b. 철수가 얼굴이 곱게 생겼다.

(19a)와 같은 상태서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꽃은 주동사 피다와 제 2 서술어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하나의 논항 표현이 두 요소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 서술어가 의미역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서술어가 결합되고 결합된 서술어가 논항을 갖는다면 의미역 할당의 문제가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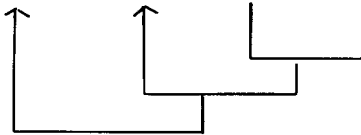
- (21) a. [곱다 ∧ 피다](꽃)
- b.  $\lambda x$  [곱다(x) ∧ 피다(x)](꽃)

(20)과 (21)에서 보는 것처럼 제 2 서술어 곱게는 의미상으로 꽃을 주어로 택하기 때문에 곱게가 꽃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의미역 관계에서 보면 곱게 피다가 꽃에 의미역을 부여한다. 이렇듯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 2 서술어와 주동사가 결합하고 결합된 서술어가 논항을 갖는다는 것은 (19b)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 (22) a. 철수가 얼굴이 곱게 생겼다.
- b. 철수가 얼굴이 곱다.
- c.\* 철수가 얼굴이 생기다.

(22a)에는 두 개의 서술어 **곱게**와 **생겼다**가 들어있는 복합동사이다. (22b)에서 보는 것처럼 제 2 서술어 **곱다**는 얼굴에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지만, (22c)에서 보는 것처럼 **생기다**는 얼굴에 의미역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22b)는 문법적이지만 (22c)는 비문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곱게**와 **생기다**는 독립적 요소 요소가 아님을 말해준다. 즉 **생기다**가 의미역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곱게**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며, 이 경우 **곱게 생기다**는 의미역을 할당할 수 있다. 따라서 (22a)의 의미역 관계는 다음과 같다.

(23) 철수가 얼굴이 곱게 생겼다.



- (24) a. 철수가 얼굴이 곱게 생기다.  
 b. [곱다  $\cap$  생기다](철수, 얼굴)  
 c.  $\lambda x \lambda y$ [[곱다  $\cap$  생기다](x)](얼굴)(철수)  
 = 곱게 생기다(얼굴, 철수)

(23)에서 보는 것처럼 제 2 서술어 **곱다**와 주동사 **생기다**가 결합된 **곱게 생기다**는 논항 얼굴을 취할 수 있고 다시 외부논항으로 철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곱다는 물론이고 생기다 역시 각각 의미역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비문법적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 (25) a. \*생기다(철수, 얼굴)  $\wedge$  곱다(얼굴)  
 b. \* $\lambda x$  [곱다(x)  $\wedge$  생기다(x)](얼굴)

(25)의 비문법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철수는 얼굴이 생기다와 같은 비문법적이 표현은 물론이고 얼굴이 생기다와 같은 표현도 문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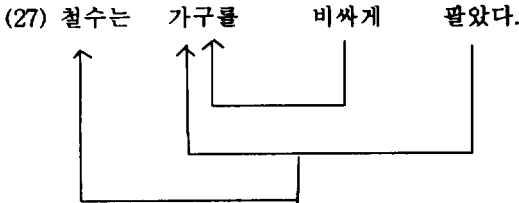
이렇듯 제 2 서술어가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 2 서술어와 주동사는 각각이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차적으로 결합된

요소 즉 (19)의 **곱게 피다**, **곱게 생기다**가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20)은 단주어 구문이고 (23)은 중주어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20)과 (23)의 논항구조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서술성은 나타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서술의 논항구조는 상태서술의 논항구조와는 다르다.

- (26) a. 철수는 가구를 비싸게 팔았다.
- b. 영희는 머리를 곱게 빗었다.

(26)의 제 2 서술어 **비싸게**나 **곱게**는 각각 행정서술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우선 (26a)의 경우, **비싸다**의 논항은 가구이지만, **팔다**의 논항은 가구와 철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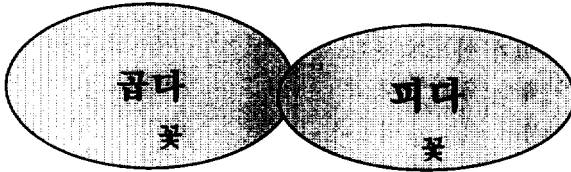
- (28) a. 철수는 가구를 비싸게 팔다
- b. 팔다(철수, 가구) ∧ 비싸다(가구)

(27)에서 보는 것처럼 제 2 서술어 **비싸게**가 부여할 수 있는 의미역과 주동사 **팔다**가 부여하는 의미역은 서로 상이다. 이 경우 **비싸게**의 의미상의 주어는 **가구**이다. 따라서 두 번째 명사구 **가구**는 일차적으로 제 2 서술어 **비싸다**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주동사 **팔다** 역시 목적어 **가구**에 의미역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구**는 **비싸다**와 **팔다**의 의미역처럼 보이지만, **가구**는 복합서술어인 **비싸게 팔다**에 의하여 의미역이 할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8b)의 논리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철수가 가구를 판 것도 사실이고, 가구가 비싼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서술의 논항구조와 이들의 명제적 관계는 주동사가 나타내는 명제와 제 2 서술어가 나타내는 명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명제적 관계가 **연접(conjunction)** 관계로 기술될 수 있는 것

은 이들의 의미적 특성에 근거한 것이다. 상태 서술은 물론이고 행정 서술에 있어서도 두 명제 사이에는 공유하는 속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상태서술의 경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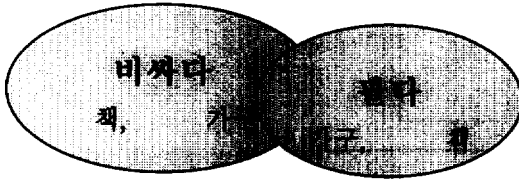
(29)



상태서술을 나타내는 꽃이 곱게 피다의 외연에서 보는 것처럼 곱다의 외연도 꽃으로 나타낼 수 있고 피다의 외연 역시 꽃으로 나타낸다면 꽃은 두 가지 속성 즉 고운 속성과 피는 속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이다. 또한 (22b)의 경우에 있어서도 얼굴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은 [곱다]던가 아니면 [넓다]던가이지 [생기다]는 속성은 없다. 따라서 두 서술어는 하나의 외연을 가지므로 두 외연은 곧 연결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 서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 2 서술어가 나타내는 명제와 주동사가 나타내는 명제 사이에는 연결관계로 기술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30)



(30)에서 보는 것처럼 비싸다의 외연에도 가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다의 외연 역시 가구가 들어 있다. 따라서 비싸다와 팔다는 서로 공유하는 논항을 갖게 됨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연결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렇듯 상태 서술에 있어서는 주동사의 통사적 범주에 관계없이 제 2 서술어가 주동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제 2 서술어와 주동사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결에 의하여 기술하였다.

이렇듯 제 2 서술어가 상태서술을 나타내던 아니면 행정 서술을 나타내

던 간에 이들 서술성은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해야 하며 두 명제 관계는 연결에 의하여 기술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면 귀결성을 나타내는 경우의 논항구조와 이들 명제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 (31) a. 철수가 배가 아프게 웃다.
- b. 영희가 발이 붓게 걷다.
- c. 순희가 목이 쉬게 소리쳤다.
- d. 철수가 녹초가 되게 맞았다.

- (32) a. \*철수가 배가 웃다.
- b. \*영희가 발이 걷다.
- c. \*순희가 목이 소리쳤다.
- d. \*철수가 녹초가 맞았다.

(31)은 모두 귀결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31)이 문법적인데 반해서 (32)는 비문법적이라는 사실은 바로 웃다, 걷다, 소리치다 등의 동사는 제 2 서술어의 주어인 두 번째 NP에 의미역을 할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33) a. 철수 배가 아프게 웃다



b. 웃다(철수) → 아프다(배)

우선 자동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33)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제 2 서술어의 논항과 주동사의 논항이 각각 상이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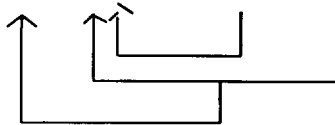
그러나 타동사에 있어서는 제 2 서술어의 논항과 주동사의 논항이 동일할 수 있다.



- (34) a. 철수는 꿈을 명들게 찾다.  
 b. 철수는 고기를 뜨겁게 구웠다.  
 (35) a. 철수가 꿈을 찾다.  
 b. 철수가 고기를 구웠다.

(34a)에서 명사구 꿈은 제 2 서술어 명들다의 외부논항일 뿐만 아니라 주동사 찾다의 내부논항이다. 또한 (34b)에서도 명사구 고기는 뜨겁다와 구웠다의 논항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명사구가 두 개 서술어의 논항이 되는 경우는 제 2 서술어를 생략하여도 문법적이다. 즉 (35)가 문법적인 것은 바로 명사구 꿈과 고기가 제 2 서술어와 주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34a)와 같은 문장의 논항 구조는 다음과 같다.

- (36) a. 철수가 꿈을 명들게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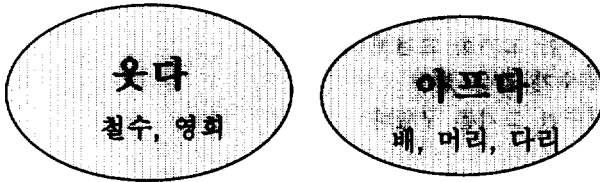
- b. 찾다(철수,꿈) → 명들다(꿈)

이렇듯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가 서로 상이하면서도 이들 주동사와 제 2 서술어의 논리적 결합관계는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귀결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던 의미역 관계에 따라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두 명제간의 관계를 연결점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귀결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두 명제간의 관계는 조건에 의하여 기술하였다. 귀결성은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와 제 2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선후 관계로부터 귀결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33)에서는 많이 웃음으로써 배가 아프게 되었다는 뜻으로 웃음의 결과가 배를 아프게 한 경우이다. 그리고 (36)에서도 꿈을 발로 찾고, 그 결과 꿈이 명들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과 제 2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사이에는 합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만일에 이들 명제가 합의 관계가 아니라 연결 관계에 있다면 두 명제 사이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37)



그러나 (37)에서 보는 것처럼 웃다와 아프다 사이에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서술어 웃다의 외연은 {철수, 영화}라 하고 아프다의 외연을 {배, 머리, 다리}라고 할 때 두 서술어 웃다와 아프다 사이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두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명제적 관계가 연접에 의하여 결합될 수는 없다. 이렇듯 두 명제간에 공유하는 논항을 갖지 못하면서도 이들 사이에 수식관계가 있다면 두 명제 사이에는 조건관계는 성립한다. (33b)와 (36b)에서 보는 것처럼 제 2 서술어가 귀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함의 관계 즉 조건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서술성과 귀결성은 주동사의 특성이나 두 명제간의 상관관계로 기술하였다. 첫째, 서술성은 제 2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가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에 선행하는데 반해서 귀결성은 주동사의 행위가 제 2 서술어의 행위나 상태에 선행한다는 점이다. 둘째, 서술성은 주동사가 들어있는 명제와 제 2 서술어가 들어있는 명제의 결합 관계가 다르다. 즉 서술성은 두 명제 사이에 연접관계(즉  $\wedge$ )가 성립하는데 반해서 귀결성은 두 명제 사이에 함의관계(즉  $\rightarrow$ )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 4. 주동사와 제 2 서술어

주동사의 논항구조와 제 2 서술어의 논항구조에 있어서 공유하는 논항의 존재 여부는 제 2 서술어가 서술성을 갖는 경우와 귀결성을 갖는 경우를 구분하는 근거로 삼았다.

- (38) a. 철수는 꿈을 명들게 찾다.
- b. 철수는 배가 아프게 웃었다.
- (39) a. 찾다(철수, 꿈)  $\rightarrow$  명들다(꿈)
- b. 웃다(철수)  $\rightarrow$  아프다(배)

(38)의 두 표현은 귀결성을 나타내는 예이다. (38)의 두 표현의 의미를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39)와 같다. 이 경우 (39a)에 있어서는 두 명제 표현에 공유하는 논항  $\alpha$ 가 있다. 그러나 (39b)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사이의 관계는 연결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의미적 관계는 서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38a)의  $\alpha$ 가 명들다는 차이에 대한 서술성을 나타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8a)는 서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귀결성을 나타낸다. 이렇듯 제 2 서술어의 논항과 주동사의 논항 사이에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느냐에 의하여 제 2 서술어가 서술성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귀결성을 나타내느냐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두 명제 사이의 공유하는 논항에 대한 논의는 표면구조에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우선 (39a)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는 데 반해서 (39b)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DeBruin and Scha(1988)에 의하면 관계명사는 의미적으로 논항을 취할 수 있는 함수 표현과 같다는 것이다. 이들 관계명사 가운데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경우나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표현이 완전한 문장이나 명제표현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관계명사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40) a. \* 철수는 아버지이다.
- b. 철수는 순희의 아버지이다.

(40a)가 비문법적인데 반해서 (40b)는 문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버지이다와 같은 표현은 반드시 내부논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즉 관계명사 아버지는 내부논항을 취하는 함수표현이다.

- (41) a. Bill is John's father.
- b. (Equal Bill (father of John))

따라서 (41a)와 같은 표현의 의미는 (41b)와 같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관계명사의 의미를 함수로 간주한다면 앞에서 논의한 제 2주어의 경우도 관계명사라고 할 수 있다. (38b)의 문법성으로 보아 철수는 배

가 아프게 웃었다와 같은 명제표현의 논항관계는 (39b)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42)와 같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42) 웃다(철수) → 아프다(배(철수))

(42)에서 보는 것처럼 두 명제 사이에는 공유하는 논항 즉 철수가 나타나 있다. 이렇듯 국어에서는 관계명사가 가질 수 있는 논항은 맥락에 의하여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42)에서처럼 공유하는 논항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타동사 구문 가운데 제 2 서술구의 주어가 주격표지를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사이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있다.

(43) a. 철수는 이가 부러지게 물었다.

b. 철수는 코가 비틀어지게 마셨다.

(44) a \*물다(철수, x,) → 부러지다(이)

b. \*마시다(철수 x) → 비틀어지다 (코)

(42a)의 주절은 철수가 물다로서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논리적으로는 물다(철수, x)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제 2 서술구는 이가 부러지다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신체명사 이와 같은 경우는 내포논항이 필요하다. 따라서 (43)의 논리식은 (44)가 아니라 (45)와 같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45) a 물다(철수, x, 이) → 부러지다(이(철수))

b. 마시다(철수 x) → 비틀어지다 (코 (철수))

(45a)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명제는 철수가 어떤 개체를 그의 이로 물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2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후행명제는 철수의 이가 부러지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후행명제의 내포논항이 반드시 철수라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6) a. \*철수는 영희의 이가 부러지게 물었다.

b. \*철수는 영희의 코가 비틀어지게 마셨다.

(46)이 비문법적이 것은 철수가 어떤 물체를 물었는데 영희의 이가 부러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 현상에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두 명제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아니라 우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문법적이다. (46b)의 경우에도 술은 마신 것은 철수이고 코가 비뚤어진 것은 영희라는 것은 두 명제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이렇듯 주동사의 논항구조와 제 2 서술어 논항구조 사이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한다면 공유하는 논항의 존재는 앞에서 논의한 서술성과 귀결성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논항과 두 명제간의 결합관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의 논항구조와 귀결성성을 나타내는 경우의 논항구조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7) a. 철수는 가구를 비싸게 팔다
- b. 철수는 배가 아프게 웃었다.
- (48) a. 팔다(철수, 가구)  $\wedge$  비싸다(가구)
- b. 웃다(철수)  $\rightarrow$  아프다(배(철수))

(47a)는 서술성을 나타내는 예이고 (47b)는 귀결성을 나타내는 예이다. (48)의 각각의 논항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명제와 후행명제에는 공유하는 논항 즉 (48a)에는 가구, (48b)에는 철수가 들어있다. 그러나 두 명제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논항의 특성이 다름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48a)의 가구가 가질 수 있는 내재적 속성은 팔다나 비싸다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48b)의 공유하는 논항 철수는 웃다와 같은 속성은 내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프다와 같은 속성은 철수가 가질 수 있는 내재적 속성이 아니다. 즉 웃다는 철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인데 반해서 아프다가 철수가 가질 수 있는 내재적 속성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49) a. 철수가 웃다           - 명제
- b. 철수가 아프다.       - 명제
- c. 배가 아프다.       - 비명제

표면상으로는 (49)의 세 문장이 모두 문법적이기 때문에 **웃다**, **아프다**는 **철수**나 **배**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9a)와 (49b)는 명제표현인데 반해서 (49c)는 명제 표현이 아니라 서술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 즉 화역이 주어지면 **철수가 웃다**는 진리치를 가질 수 있고, **철수가 아프다** 역시 진리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배가 아프다**는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의 배가 아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명제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48)에는 공유하는 논항 **가구**와 **철수**는 비록 선행명제와 후행명제에 나타나는 공유 논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름을 말해준다. 따라서 (48a)의 **팔다**와 **비싸다**는 공유하는 논항의 성질이 동일함으로 두 서술어는 연결관계로 기술할 수 있는데 반해서 (48b)의 **웃다**, **아프다**는 각각 공유하는 논항 **철수**를 가지고 있지만, **철수**는 **웃다**의 논항은 될 수 있지만 **아프다**의 논항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두 서술어 즉 **웃다**와 **아프다**는 연결관계로 기술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48a)의 논항구조와 (48b)의 논항구조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8b)의 경우에는 표면상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두 명제는 독립명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5. 결론

국어의 복합동사 가운데 제 2 서술어와 주동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제 2 서술어와 주동사의 논항구조와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 2 서술어는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국어에서는 [NP + {A, V}-게 + V]구조를 중심으로 이들 표현이 갖는 서술성과 귀결성에 국한한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서술성은 제 2 서술어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와 과정을 기술하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제 2 서술어는 주동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2 서술구에 변이가 유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를 각각 상태서술과 행정서술로 구분하였다.

귀결성은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에 의하여 제 2 서술어의 행위나 상태가 유발되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귀결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 주동사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주동사는 과정이나 행위

의 동사이어야 하고 목적어의 효과나 접촉을 함의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 2 서술어와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의 선행관계로 본다면 서술성은 제 2 서술어 > 주동사의 관계로 기술할 수 있지만, 귀결성은 주동사 > 제 2 서술어 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

또한 논항구조에 있어서도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 2 서술어와 주동사가 결합하여 논항을 취하는 데 반해서 귀결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 2 서술어와 주동사는 독립적으로 논항을 취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서술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 2 서술구의 논리식과 주동사의 논리식의 결합은 연접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귀결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건에 의하여 기술되어야 함을 보았다.

그러나 제 2 서술구의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구명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제 2 서술어구의 구조로 간주하였던 [NP + (A, V)-게 + V] 구조는 종속절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50) 물이 잘 빠지게 하수구를 고쳤다. -종속적 연결어미

(50)의 물이 잘 빠지게도 [NP + V-게]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우 물이 잘 빠지게는 제 2 서술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두 속성 빠지다와 고치다는 공유하는 외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빠지다가 고치다를 수식하는 관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 관계는 복합동사 관계가 아니다.

둘째, 제 2 서술구가 귀결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의 해석이 가능하다.

(51) 순이는 머리를 곱게 빗었다.

(51)에서 곱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빗질을 한 경우와 빗질을 한 결과 머리가 고운 상태가 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51)은 서술성과 귀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의적 의미를 갖는 경우, 귀결성과 목적성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제 2 서술구와 주동사와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 2 서술어는 주동사에 대한 수식관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관계에 대한 논의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속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승곤 (1987) 이음씨끝 {-게}와 {-도록}의 의미와 통어적 기능,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서울.
- 김영현 (1992) 영어 보문소절의 IP 범주구조 분석, 『언어』 17-1.
- 서정수 (1987) '게'와 사동법,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서울.
- 안승신 (1996) 제 2 형용사 서술어의 통사구조, 『언어』 21-3
- 윤평현 (1988) '-게, -도록'의 의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 이영현, (1998), 서술어의 논항구조와 의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출판예정)
- 한재현, (1998), 서술구 구조, [언어학] 6-1
-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Bowers, J.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 Carrier, J. and Randall (1992) The argument structure and Syntactic structure of resultative, *Linguistic Inquiry* 23.
- DeBruin, J. and R. J. H. Scha (1988) The Interpretation of Relational Nouns, *2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Morristown, NJ.
- Dowty, D. R (1970) *Word Meaning and Montauge Grammar*, Reidel, Dordrecht.
- Haliday, M.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I. *Journal of Linguistics* 3.
- Jong-Bok Kim (to appea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English and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
- Ki-Hyun Tak (1993) Small clauses and Predication in English (I), 『언어』 18-1
- Kitagawa, Y. (1985) Small but Clausal. CLS 21.
- Rapoport, T. R. (1992), Stage and adjunct predicates: Licesning and structure in secondary predication constructions, In E. Reuland and W. Abraham, eds., *Knowledge and Language, Vol. 11. Lexical and conceptual structure*, Kluwer Academci, Dordfecht.



- Rapoport. T. R. (1993) Verbs in Depictives and Resultatives, in J. Pustejovsky (eds) *Semantics and the Lexicon*, Kluwer Academic Publish, Boston.
- Roberts, Ian (1988) predicative APs, *Linguistic Inquiry* 19.
- Simpson, J. (1983) Resultative, In L., Levin, M. Rappaport and A. Zaenen(eds.),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IULC, Bloomington.
- Simpson, J. (1983) Resultatives. in L. Levin. M. Rappaport and A. Zaene (eds.),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IUCL. Bloomington, IN.
- Williams, E. (1975) Small Clauses in English, *Syntax and Semantics* 4.
-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조선대학교 외국학 대학 영어과  
광주시 서석동 375번지 ☎ 501-759  
E-mail: younglee@mail.chosun.ac.kr